

인조대리석시장 “난타전”

Dupont · 동양나이론 등 4파전에 럭키 · 한양 가세

인조대리석시장이 Dupont, 토데코 등 수입품과 동양나이론을 필두로한 제일모직 등 국산품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럭키, 한양화학이 참여함에 따라 국산품간의 시장쟁탈전도 가중되고 있다.

93년 약 11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인조대리석 시장은 최근 매년 30%이상 성장, 대기업들이 시장진출을 적극화하고 있다.

국내 공급현황을 보면, Dupont의 국내 판매기업인 산상소재의 Corian 70억원을 비롯해 동양나이론의 Stonex 15억원, 제일모직의 Staron 8억원, 토데코의 Avonite가 7억원 정도로 조사됐다.

여기에 93년 상반기 진출한 럭키가 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한양화학은 93년 말 진출해 아직 판매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 맨먼저 진출한 산상소재는 91년 30억원, 92년 55억원에서 93년 70억원을 판매해 급성장했으며, 94년에는 100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으나 국산품의 증가로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조대리석 시장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산상소재	동양나이론	제일모직	토데코	럭 키	합 계
상 품 명	Corian	Stonex	Staron	Avonite	Lumart	
Base-Resin	MMA계	MMA계	MMA계	UPE계	MMA계	
판매 1992	55	10	-	6	-	71
실적 1993	70	15	8	7	5	105
비 고		93년 1000 톤증설 94년 2000 톤증설예정	94년 증설 예정		93년 판매 개시	

90년 생산을 시작한 동양나이론은 현재 1000톤 규모에서 2000톤 규모로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93년 5월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간 제일모직도 현 500톤에서 대규모 증설을 계획, 조만간 생산방식과 규모를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Lumart를 생산하고 있는 럭키는 현재 욕조 생산에 주력, 월 150~200개의 욕조를 생산하고 있다. 이같이 시장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일본의 Athdena제품을 공급해온 코오롱이 자체개발이 여의치 않자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미국의 Novamar제품을 공급했던 대한페인트링크도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조대리석은 MMA계와 UPE계가 있는데 MMA계는 질감과 가공성이 우수하며, UPE계는 다양한 색상 창출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UPE계가 퇴조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MMA계 제품은 Corian, Stonex, Staron, Lumart 등이 있으며 UPE계는 현재 Avonite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조대리석시장은 최근 주상복합건물 활기와 건자재 고급화 추세에 힘입어 30%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 94년에는 150여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 선도기업인 동양나이론과 제일모직의 경쟁이 가열돼 수입품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보이며 럭키, 한양화학의 가세로 시장의 판도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6/27>